

충성대신보

제 190호
2021년 9월 3일 금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장광선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황수현 / 논설위원 황수현 송경재 민병후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이경미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Photo by: 병장 변준언

- 02 학교소식 | 제35대 학교장 장광선 소장 취임
- 03 학교소식 | 토크 콘서트
- 04 학교소식 | 제1회 KAAY 강철전사 경연대회
- 06 학교소식 | 57·58기 하계군사훈련
- 07 학교소식 | 전·출입 및 전역·퇴직자명단
- 09 생도광장 | 자발적인 운동문화 Team KAAY
- 10 오피니언 | 충성대칼럼
- 12 교양 | 트렌드 코리아 2021 <# 오하운>
- 14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이경한 중령
- 16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장광선 소장, 제35대 육군3사관학교장 취임

“정예장교 양성과 학교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 밝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돼



▲ 취임사를 하고 있는 장광선 신임 학교장

학교는 26일 오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충성관에서 제34대 여운태 학교장과 35대 장광선 학교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장광선 소장은 3사 25기로 임관하여 2군단 참모장, 2작전사 교훈처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로 알려졌다.

장광선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교의 전통과 업적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도약적 변혁을 주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임하는 여운태 소장은 지난 2020년 12월 부임한 이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인재육성과 학교의 외연 확대와

미래업무 추진에 힘써왔으며, 제22보병사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외부인사

초청 없이 자체 최소인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참석자 개인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중령 임문택**



▲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가운데), 장광선 신임 학교장(좌), 여운태 이임 학교장(우)



▲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좌)이 장광선 신임 육군3사관학교장(우)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의 스마트한 인재 선발

59기 정시 / 60기 예비생도 선발 시험

7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에 걸쳐 2022년에 입교할 59기 정시생도와 2023년에 입교할 60기 예비생도를 선발하였다.

총 3차로 구성된 선발 과정은 1차 서류 전형 [대학성적 또는 고교내신과 수능성적(공인영어성적) 중심], 2차 선발고사 [영어 듣기평가 및 간부 선발 도구를 활용한 지적능력 평가], 3차 적성 [신체검사, 체력

검정, 인성검사, 심층면접]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3차에 걸친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총 550명이며, 이중 여자 생도는 55명이다. 최종합격자는 59기 정시생도 10월 29일, 60기 예비생도 10월 15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학교 평가관리실장 김호길 대령은 “선발평가는 학교의 전 역량을 집중한 가운데, 엄격한 절차와 공정성을 토대로 진행하였다.”며 “지적능력, 인성과 품성, 올바른 건전한 가치관, 튼튼한 체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선발 중점을 피력했다.



▲ 생도선발 3차 시험(체력검정)

* 올해 입시경쟁률은 59기 정시생도 전체 4.5:1(1,998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이중 남자생도는 3.2:1(1,251명), 여자생도는 166:1(747명)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무관 길진규



▲ 생도선발 3차 시험(심층면접)

제1회 KAAV 강철전사 경연대회 개최

12개 팀 120명 출전,
체력과 정신력,
전술적 상황조치 팀워크 겨뤄

영프리카의 열기가 절정으로 치달고 있던 7월, 학교 교정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생도들의 전우애와 팀워크로 후끈 달아올랐다. 바로 7월 27일부터 1박 2일간 생도들의 강인한 전투체력과 정신력, 전술적 상황조치에 기반한 전장 리더십을 겨루는 '제1회 KAAV 강철전사 경연대회'다.

올해 야심 차게 준비한 이번 대회에서 생도들은 하계군사훈련 기간 장애물 달리기, 개인화기, 전술적 상황조치, 체력 등 각 분야에서 종합적 평가를 받았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해 강한 체력, 고도의 전투기술, 전장 리더십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대회 첫날 열린 장애물 달리기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된 영내 장애물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개인전은 장애물 14개를 극복해 결승점에 도착한 시간을, 단체전은 팀원들이 장애물 15개를 2명씩 릴레이 방식으로 2회 완주

한 시간을 측정했다. 대회 이틀째인 28일 오전에는 10명씩 12팀, 총 120명의 3·4학년 생도가 중대를 대표해 팀 대항전을 펼쳤다. 20kg 완전군장 메고 3km 달리기, 장애물 코스, 화생방 지역 극복, 환자후송 등 주어진 상황에 따른 전술적 상황조치를 평가했다.

대회에 입상한 생도(58기 이지명 생도 외 5명)는 학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며, 개인전 우수자 2명(58기 이지명 생도, 57기 박기현 생도)은 육군 최정에 300 전투원으로 선발되는 특전이 부여됐다.

단체전 우승팀(팀명: 원코인, 하훈 8중



▲ 강철전사 경연대회간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있는생도들

대, 4학년)에게는 제1회 대회의 상징성이 담긴 트로피와 우승기가 수여됐다.

대회를 마무리하며 생도들 한마디!

① 중대를 대표해서 훈련하는 만큼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 57기 양병찬 -

② 같이 준비하는 동기들이 부상을 통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힘들었던 생각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고 동기들과 함께 결승점에 들어선 순간은 그 어떤 일보다도 기뻐했습니다.

- 57기 성준서 -

③ 힘든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활동적인 경연대회를 통해 생도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철전사 경연대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57기 이원희 -

<제1회 KAAV 강철전사 경연대회 화보 - 4, 5면>

대위 박광선

사관생도 文武 겸비를 위한 토크 콘서트

주무관 김민수



▲ 합참 지통부장 김원태 장군(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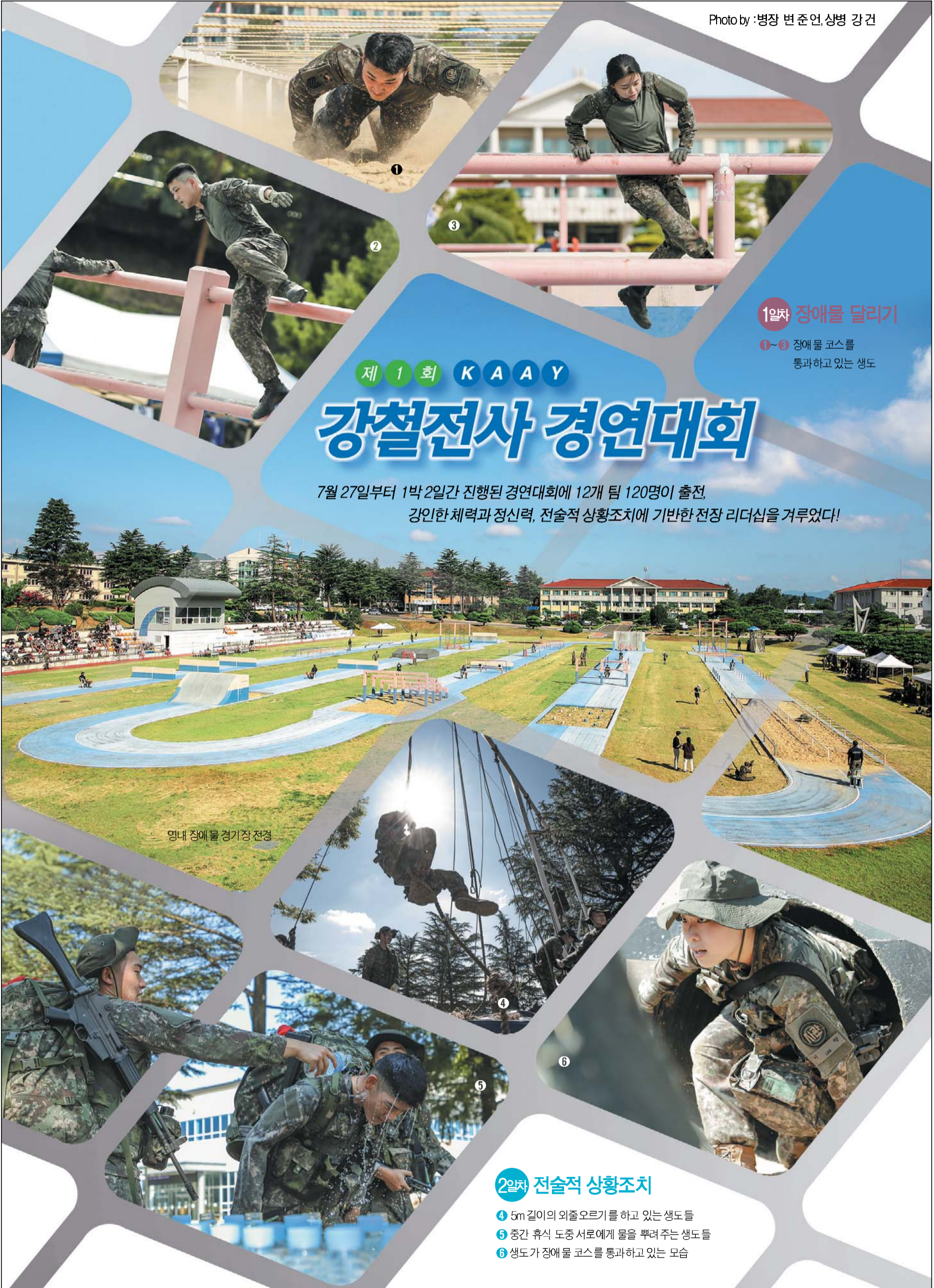
▲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7. 7)



▲ 포항공대 서영주 인공지능교육원장(7. 9)



Photo by : 병장 변준언, 상병 강건



제 1 회 K A A Y
강철전사 경연대회

7월 27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경연대회에 12개 팀 120명이 출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전술적 상황조치에 기반한 전장 리더십을 겨루었다!

1일차 장애물 달리기

①~③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는 생도

영내 장애물경기장 전경

2일차 전술적 상황조치

- ④ 5m 길이의 외줄오르기를 하고 있는 생도들
- ⑤ 중간 휴식 도중 서로에게 물을 뿌려 주는 생도들
- ⑥ 생도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1일차 장애물 달리기

- 7 8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는 생도
- 9 10 단체전 릴레이 장애물 달리기

2일차 전술적 상황조치

- 11 12 혼자 후송
- 13 20kg원전 군장 메고 3km 달리기
- 14 화생방 지역 극복

제1회 KAAY 강철전사 경연대회 결과

개인전

순위	소속	성명	포상	비고
1	하훈 2중대 (3학년)	이지명	트로피, 학교장상장	우 승
2	하훈 6중대 (4학년)	박기현	학교장상장	준우승
3	하훈 8중대 (4학년)	이학령	학교장상장	장 려
4	하훈 6중대 (4학년)	박정주	학교장상장	장 려
5	하훈 8중대 (4학년)	정원준	학교장상장	장 려
1(女)	하훈 6중대 (4학년)	송승연(女)	학교장상장	장 려

단체전

순위	소속	팀명	포상	비고
1	하훈 8중대 (4학년)	원교인	우승기트로피 학교장상장	우 승
2	하훈 6중대 (4학년)	TeamKAAY	학교장상장	준우승
3	하훈 8중대 (4학년)	스테인리스	학교장상장	장 려



“사관생도들은 이번 하계군사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필승의 정신전력을 연마할 수 있었다.”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무더위속 담금질 '하계군사훈련'

Photo by : 병장 변준언, 상병 강건

학교는 57기·58기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계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각개전투, 분대 공격·방어, 화생방, 독도법, 수류탄 등을 연마하며 정예장교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지속했다.



▶ 휴식 중 수통 전달



▲ 은폐를 통한 전방 경계



▲ 주변 경계



▲ 정신전력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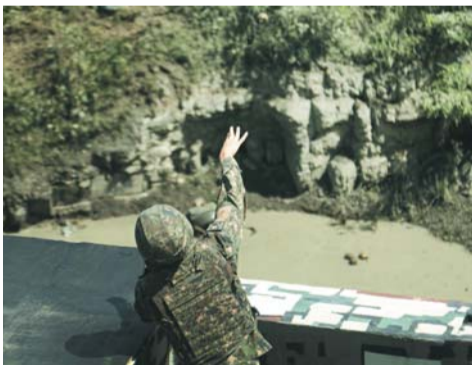
▲ 독도법 훈련 중 지도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생도



▲ 방어 전투 훈련



◀ 부상자운반



▲ 수류탄 투척



▲ 탄약휴대하 장애물 극복



▲ 화생방 실습



▲ 편제 장비 K-3 사격



환영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7, 8월 학교 간부 전 · 출입 및 전역 · 퇴직자 명단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수부 인문학처
심리학 교수
중령 편관서



교수부 인문학처
군사사학 교수
소령 문용득



교수부 사회학처
법정학 교수
소령 박용준



교수부 인문학처
영어학 교수
소령(진) 이강준



교수부 이학처
화학환경과학 교수
대위 김정운



학교본부 군중실
신앙선도장교(신부)
대위 한승호



학교본부 군중실
신앙전력장교(법사)
대위 박영호



학교본부 법무실장
중위 김윤하



생도대 리더십계획담당
6급 은대건



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근무지원단 영선대 냉난방담당 5급 정영배
- 교육사 공병학교
- 생도대 인사담당 5급 정경근
- 인사사
- 교수부 이학처 화학환경과학 교수 대위 조경근
- 공병교(지휘참모과정)
- 근무지원단 영선대 운영장교 대위(진) 김형주
- 공병교(지휘참모과정)
- 근무지원단 보급대 보급장교 대위(진) 조준호
- 군수교(지휘참모과정)
- 근무지원단 병원 간호장교 대위(진) 송소연
- 영어반
- 학교본부 법무실장중위 박용홍
- 53사단



영광스러운 전역·퇴직을 축하드립니다 ♥

- 교수부 이공학처 무기시스템학과 교수 중령 박주오
- 학교본부 군사경찰대장 소령 권해령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생도 노감문

以熱治熱, 무더위는 열정으로 극복한다



58기 김수현 생도

찌는 듯한 더위에 걱정스러웠던 하계 군사훈련이 어느새 끝이 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주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훈련을 받으며, 모든 게 처음이라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져서 때때로 군인이라는 길이 나와 맞을까 하는 고민도 했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아전에서 부하들을 이끄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훈련이고,

더 나아가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지식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와닿았다. 하계군사훈련은 한마디로 효사로(훈련장 가는 길)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기초군사훈련 행군 때, 효사로는 훈련장까지 가는 산책로라는 선배 생도들의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가파른 오르막길과 숨이 턱 막히는 더위에 이게 어떻게 산책로일까 하는 의문을 품었지만, 갈 때는 오르막 길이었다는 것이 올 때는 내리막길이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단독군장으로는 숨 한 번 차지 않고 가볍게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산책로라는 의미를 이제야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영천의 무더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휴식시간에는 수돗가에서 머리를 감고 등목도 하면서 더욱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강의장 밖으로 나와 그늘진 풀 위에 털썩 앉아서 시원하고 풍성한 자연 바람을 몸으로 가득 느끼며 동기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모두에게 똑같이 힘든 훈련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동기들과 더 끈끈해질 수 있었다. 특히, 솔선수범하는 동기들에게서 진정한 동기애를 느꼈다. 공동체를 위해 가까이 희생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진정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 다시 돌아켜보니 그날의 기억들이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가슴 한 켠에 남게 될, 무더위를 열정으로 극복한 이熱治熱 하계군사훈련이었다.



생도들의 여름휴가

58기 기자생도 김시현, 정원표

매미가 밤새 울고 풀 내음이 나는 계절, 여름이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은 바다, 계곡 등 시원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생도들이 생각하는 여름이란 바로 하계군사훈련이다. 58기는 처음 겪은 하계군사훈련, 57기는 마지막 하계군사훈련 다들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정진했다.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이번 여름, 생도들은 쉬지 않고 정예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였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붉게 타오른 그들의 피부처럼, 그들의 열정 또한 불타올랐다. 불타오른 생도들을 식혀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하계휴가다.

지난 홍보출장 이후 지친 심신을 달래줄 하계휴가 기간이 다가왔다. 생도들은 각자 열심히 휴가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 발전과 휴식을 위해 힘썼을 것이다.

하계군사훈련을 뒤로하고, 시원했던 그들의 하계휴가는 어땠을까?

Q 다시다녔던 21-1학기가 모두 끝나고 2차 학기가 시작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본 하계군사훈련과 휴가, 어땠나요?

A 생도 : 제가 마지막에 받았던 훈련인 분대 공격·방어 훈련 때 계속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휴가다...휴가다...’

B 생도 : 사실상 휴가만 바라보고 이번 훈련을 버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2주였던 휴가 기간이 학교의 배려로 인해 3주로 늘어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훈련을 열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C 생도 : 저도 마지막 훈련인 분대 공격·방어 훈련이 제일 힘들었는데, 휴가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버텼던 것 같습니다!

D 생도 : 하계군사훈련을 통해 한층 더 군인으로서 성장한 느낌을 받았고, 고된 훈련 끝에 휴가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Q 길었던 휴가가 끝나고 21-2학기가 시작되었어요. 3주 동안의 휴식을 발판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A 생도 : 바쁜 일정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해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B 생도 :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학기 때 하지 못했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C 생도 : 하계군사훈련을 하며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매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증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D 생도 : 다양한 분야의 공부와 활동을 통해 공모전에 응시해보고 싶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은 이제 저물어가고 곧 낙엽이 저 바스락 소리가 나는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정예 육군 장교가 되고자 하는 목표로 모인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휴가로 들떴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고 다시 한 발짝 나아가갈 시간이 왔다. 각자의 목표 속에서 오늘도 정진하는 생도들을 응원한다.

생도들의 자발적인 운동문화 - Team KAAY

57기기자생도 박군호



이번에는 최근 SNS상에서도 유명한, 운동을 좋아하는 생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비공식 크로스핏 동아리 Team Kaay를 소개하려 한다. Team Kaay의 김대현, 변규욱, 조형진 생도의 인터뷰를 통해 팀에 대해 들어 보았다.

Q.어떤 목적으로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A. 가장 젊을 때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처음 시작할 때의 목표가 있었나요?

A.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배우면서 체력과 근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고, 대외의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Q.교내 어디에서 크로스핏을 할 수 있나요?

A. 단석관 2층 크로스핏장과 매트가 깔린 정무관의 태권도장에서 맨몸 운동과 기구 운동을 할 수 있고 교내에 설치되어있는 철봉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주로 언제 어디서 활동하나요?

A. 체력단련 시간을 활용하거나 주말에 1시간 이상씩 운동 루틴을 계획해서 교내 여러 장소를 활용하여 운동을 합니다.

Q.운동을 잘하는 인원만 들어갈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우리 팀은 운동에 대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성을 갖추었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운동을 잘 못 하는 인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사실 저희도 누구를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운동을 잘 못 하는 인원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운동하면서 운동습관과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Q.강철전사경연대회에 참가해 단체전 우승을 하셨는데, 팀 활동이 도움이 됐나요?

A.아직 종합우승 결과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2일 차 단체전은 팀 활동을 통해서 단단해진 팀워크와 체력을 바탕으로 압도적으로 1등할 수 있었습니다.

Q.팀 구성원들에게 운동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 생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데, 우리에게 지친 하루

를 버티는 힘을 주는 에너지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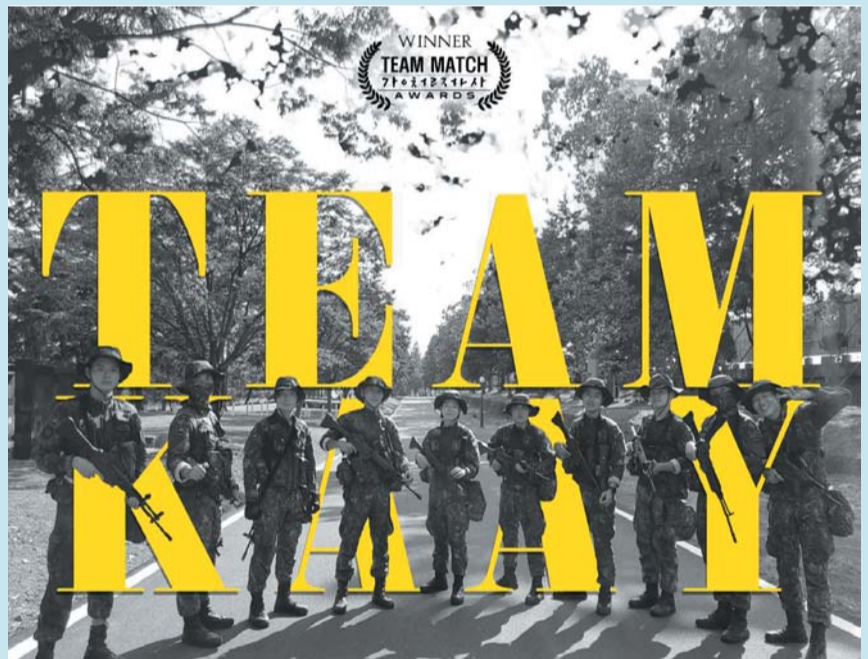
Q.57기, 58기 인원들에게 자발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말해준다면?

A. 자발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면 첫 번째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체력 측정이 두렵지 않고, 언제나 특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목표의식과 열정이 생깁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은 군인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덕목입니다.

Q.Team Kaay 1기로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목표가 무엇인가요?

A. 크로스핏을 하면서 팀원들 간의 팀워크를 향상하고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며, 이것이 체력향상으로 이어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크로스핏과 러닝을 매일 할 것이고, 21-2차부터는 더 많은 동기·후배들과 같이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생도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크로스핏 대회도 나가는 것, 학교 문화체육부서에도 정식 동아리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Team Kaay의 김대현, 변규욱, 조형진 생도와 인터뷰 해보았다. 명확한 목표와 열정을 갖고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즐겁게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 체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등 누구든지 팀 카이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팀카이의 멋진 활동 기대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 강철 전사출전 사진

'21-1학기 우수 생도 포상

‘학습 동기’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생도 선발

7월 12일, 학교 성도광장에서 생도대장(준장 임국기) 주관으로 21-1학기 우수 생도를 선발하여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는 시상식을 통한 생도들의 동기유발,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봄’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일반학 우수, 체력 S등급(Special) 및 최고 향상, 모범생도(훈육평가 상위 2% 이내), 헌신상(지휘군무생도, 참생도상, 군사마스터 등) 5개의 분야에서 총 49명의 생도들이 영예를 안았다. 생도대는 앞으로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자기 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생도들을 지속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57기기자생도 이경미



모범생도 우수자 대표(58기 사관생도 박소현)



헌신생도 우수자 대표(57기 사관생도 한현섭)



체력향상 우수자 대표(57기 사관생도 성준서)

칼럼 I

전쟁의 이중성



중령 황수현
인문학처
군사사학과 교수

전쟁은 술(Art)의 영역인가, 아니면 과학(Science)의 영역인가? 전쟁의 속성을 묻는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군사학자의 논쟁을 불러왔다. 근대 이전의 전쟁은 주로 인간의 근력에 기반한 전투로 진행했기에 과학의 영역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개발한 화약이 유럽으로 전파되어, 13세기 후반부터 서구에서 화약을 무기체계에 접목한 화약 혁명이 발생하자, 점차 전쟁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그리고 이러한 화약 혁명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변화들은 중세의 암흑기에 종지부를 찍고, 역사는 바야흐로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1789년 7월, 프랑스혁명은 유럽 근대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유럽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그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쟁영웅인 나폴레옹이 등장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적 천재인 나폴레옹은 기존과는 다른 전쟁 수행방식으로 군사 분야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유럽 사회에 던진 군사혁신의 충격은 프로이센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나폴레옹 전쟁을 몸소 경험한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위대한 군사사상가인 클라우제비츠는 참전경험에 전쟁에 대한 철학적 관념을 접목해 불후의 명작인 전쟁론을 집필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을 통해 전쟁이 갖는 이중성을 ‘전쟁은 술이나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는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그는 전쟁을 인간이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을 인간의 상업활동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전쟁계획을 설명하며 전쟁은 나름의 고유한 분법을 갖고는 있지만, 논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쟁이 갖는 비논리적 영역의 당위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갖는 이중성의 영역인 술과 과학 모두가 전쟁의 속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쟁을 인간이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정점인 정치의 수단이라고 규정한 그의 주장을 고려할 때,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속성을 분석함에 있어 과학보다는 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수행에 있어 술적 영역의 발휘 주체인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통찰력(Coup d'oeil)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강조했던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사후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전쟁 양상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급격히 변화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현대전은 AI, Big Data, 사물인터넷 등이 조합된 초지능, 초연결의 기술집약적 전쟁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전쟁개념의 변화에 따라 전시와 평시, 전투원과 비전투원(민간인), 지리적인 전장의 구분이 모호한 초혼돈의 전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 따라 전쟁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군인이 아닌 과학자가 전쟁을 주도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문명의 시대에도 전쟁의 결정과 수행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은 역시 인간의 몫이다. 아무리 AI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전쟁에 관련된 중요 결정을 AI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컴퓨터에 의존하여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날의 전쟁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력을 갖춘 파괴적인 무기의 등장으로 무기체계를 과거와 같이 단순한 전쟁 수단으로만 생각할 수만도 없다. 따라서 현대전 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이중성 가운데, 술적 영역에 대한 인간의 판단과 결심



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21세기 현대전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과학기술의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쟁 목적을 위해 이를 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군인의 중요성은 절대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칼럼 II

‘유니버스’를 구축하자



중위 신창훈
인문학처
군사사학과 교수

최근 10여 년간 영화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현상은 단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의 흥행일 것이다. 확실히 마블 스튜디오는 <아이언맨>, <윈터 솔저>, <블랙 위도우> 등 매력적 서사와 시각적 즐거움을 두루 겸비한 작품을 꾸준히 내놓았고, 이는 영화의 새 지평으로서 대중들의 열렬한 호응과 기대감을 자아냈다.

그러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진가는 개별 작품의 완성도 그 너머에 있다. 마블 스튜디오는 한편으로는 각 영화의 완결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와 영화 간의 연계를 통해 ‘유니버스’, 즉 세계관을 구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는 영화를 통해 펼쳐지는 또 하나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서사와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음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니버스가 그렇게 거대하고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가 곧 각각의 유니버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자. 그 안에는 ‘나’와 그 주변인이라는 주·조연이 있으며, 이들이 함께 전개해나가는 희극적 혹은 비극적 장면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서사들로 구축되는 세계가 자리한다. 특히,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의 유니버스는 더욱 극적이 아닐까. 입교 이전 경험한 20대 초반의 역동적 장면들이 있으며,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닌 사관생도의 이야기가 현재진행형이며, 임관 이후 펼쳐질 장교로서의 삶이 있다. 저마다 나름의 의미를 지닌 유니버스의 조각이다. 담당 과목 <한국사>의 한 과제인 ‘나의 역사 쓰기’를 통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온 이야기, 사건, 장면을 토대로 나름의 세계를 정립하고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를 마주한다. 생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다채롭고 폭넓은 경험 속에서 유니버스를 넓혀왔을 것이다. 이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장교로서 그 자질을 더욱 드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자면, 유니버스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아쉽게도 내 삶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를 조연 혹은 엑스트라로 낮추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관객들이 영화 속의 조연과 엑스트라를 보기 위해, 더 나아가 주인공이 주변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영화관에 가는 것은 아니다. 나의 유니버스라면, 내가 쌓아 올린 유니버스라면, 주인공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 자세로 임해보자. 마키 토니 스타크, 스티브 로저스, 나타샤 로마노프가 자신들의 선택으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가 되었던 것처럼.

* 유니버스(Universe) : 분야 영역을 아울러 글에서는 본인만의 세계관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



사회 저명인사칼럼 I

리추얼 (Ritual)의 힘



이재영

포스코 석좌교수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토요일 마다 책방에 간다. 토요일 책방 나들이라고 부르는 일이 벌써 6년째다. 책방 앞에는 분식집이 있다. 책방에 들르기 전에 라면을 한 그릇 시켜 먹는다. 가난했던 청년 시절, 커피 한 잔과 비슷했던 라면의 가격은 그보다 못하다. 그래도 후각은 추억을 소환한다는 말처럼 한 그릇의 라면을 먹으며 배고팠고 앞날이 안 보였던 젊은 날을 떠올린다. 여지없이 나는 그 시절의 뼈적 마른 청년으로 리셋(Reset)된다. 라면을 먹고는 바로 책방으로 직행이다.

책을 고르고, 책 냄새를 맡고, 책을 읽고, 그러다가 맘에 들면 한 권을 산다. 이것을 6년간 하다 보니, 토요일 책방 나들이는 하나의 리셋 장치가 되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높은 분들과 열띤 회의를 하거나, 수 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어디선가 풍선이 가슴에 들어찰 때마다 토요일 책방 나들이는 이 모든 거품을 휘휘 저어 낸다. 영혼을 깨우는 것은 종교 행위만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상의 반복, 리추얼로 가능하다.

마키아벨리는 저녁 무렵 글을 쓰려면 예복을 갈아입고 서재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에게 글을 쓰는 일은 일종의 성스러운 일이었나 보다. 칸트는 새벽 다섯 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열그레이 차를 한잔 마시고 아침 대신으로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그리고는 철학자의 사상을 피워냈다. 저마다 일상을 꾸미는 어떤 의식, 이것을 리추얼이라고 한다. 세상에는 리추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두 부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리추얼이 있는 인간들이 무엇을 이루어 낸 것은 분명하다.

리추얼. 생활 속의 제례의식. 이것의 정점은 아마 군 생활이 아닐까?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 점호를 하고, 절도 있게 식사를 하는 일사불란한 아침이야말로 생활의 리추얼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에는 아마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생활에 밴 아침 리추얼일 것이다. 벌떡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근면한 직장인을 만들어냈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오일 머니를 벌어들인 중동의 전사들을 탄생시켰을 것이다.

한번 잘 들인 습관은 금수저가 부럽지 않다.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별견 대지의 흙을 움켜쥐고 미래를 열어낸다. 리추얼이 있는 흙수저는 금수저보다 찬란하다. 나의 조잡한 토요일 책방 나들이도 이렇게 한가락 하는데, 우리 모두 멋진 자기만의 리추얼을 하나씩 장착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회 저명인사칼럼 II

진짜 잘난 사람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아래 그림은 미국의 저명한 화가이자 삽화가인 노먼 록웰이 그린 '삼중 자화상'이란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다 훨씬 잘생기게 그리고 있다. 작가는 무슨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을까? 예전의 멋진 모습을 그린 걸까? 아니면 심한 자기애(self-love)에 빠진 나르시시스트(narcissist)인가?

나르시시즘은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인다.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자존감(self-esteem)을 생각한다. 자존감은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지금의 자신으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한 번 살펴보자. 확률 통계학 하는 사람들이 재미 삼아 인간이 태어날 확률을 계산해놓은 게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략 그 범주는 1~3억 분의 1이라고 한다. 로또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고 벼락 맞을 확률이 50~200만 분의 1이라니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실로 엄청나게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통계학 하는 사람들의 수학적 계산일뿐이고 유전학적, 철학적 개념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고려 시대 보조국사 지눌은 <수심결>에서 한 인간이 지금의 자신으로 태어날 확률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머리를 내미는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나무판자의 뚫린 구멍으로 정확히 머리를 내밀만 한 기적이라고 했다. 거의 불가능한 확률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나에게 이르기까지의 진화 과정을 생각하면 지눌 스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도 같다.

내가 정확히 지금의 유전자를 가지고 지금의 나로 태어날 확률은 실로 기적적인 것이다. 여기서 1만 틀려도 지금 이 자리에는 내가 아닌 나를 닮은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소중한 고귀한 존재인 것이다. 이럴진대 우리가 어찌 인생을 허투루 살겠는가?

나르시시즘이 부정적이라고 했던가? 나는 적당한 수준의 나르시시즘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났다고 또 나는 뭐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 나쁠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허튼짓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잘난 사람"이 되고 거기에 더해 다른 사람의 가치, 존재도 나 못지않게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면 "진짜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1

<#오하운>

우리는 종종 자신이 만든 틀에 스스로를 가두곤 한다. 틀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틀의 크기는 다르지만, 경계는 있기 마련이고 그 경계는 개인의 사유와 행동을 제약한다. 이에 벗어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움직임' 그 자체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운동이다. 운동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운동은 과거부터 인간의 중요한 행위 중 하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적 모임이 통제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제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타자와의 거리두기, '언택트' 문화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운동하는 인구는 늘었다. 전염병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었고, 특히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바이러스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생겼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가 봉쇄되었는데, 오히려 몸을 움직여서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양적으로 더 높아졌던 셈이다.



이수진 박사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이제 질문은 “코로나 이후 운동은 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이다. 최근 운동의 특성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운동 트렌드와 달라진 코로나 이후 운동을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말의 줄임말, #오하운으로 명명하여, 그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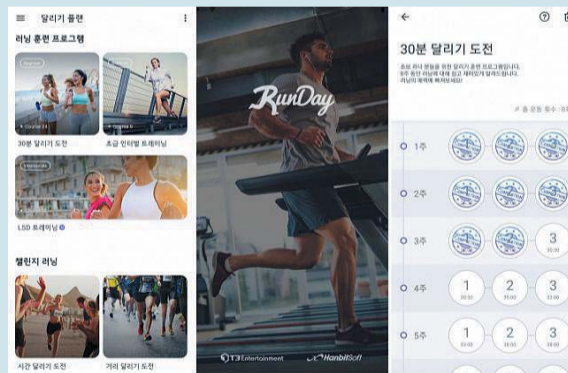
첫 번째, 경험이 확장되었다. 익숙한 운동을 하기보다,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경향이 운동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이 경험적 확장은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확장은 기존에 잘하지 않던 운동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많은 ‘골린이’와 ‘산린이’들이 등장했다. 각각 골프와 산을 어린이와 합성한 신조어로 처음 골프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등산은 이전까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는데, 최근 들어 젊은 친구들의 관심이 높아진 운동 분야다.

수직적 확장은 기존에 하던 운동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것이다. ‘플로깅(Plogging)’이 대표적 사례다.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 · 이식을 줍다)’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한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친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요즘’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플로깅을 하는 사람들(출처: 동아일보)

두 번째, 관계의 확장이다. 혼자여도 혼자고 싶지 않은 요즘 친구들에게 ‘느슨한 관계’는 새로운 운동의 기반이다. 물론 이전에도 산악회, 테니스회 같은 운동 모임은 존재했지만, 이는 요즘 운동에서의 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가령, 요즘 운동모임은 실명 대신 닉네임으로 소통하고, ‘모임을 위한 운동’이라기보다 ‘운동을 위한 모임’이기에 운동이 끝나면 쿨하게 헤어진다. ‘찐’ 운동모임일 뿐이다. 더 나아가 언택트 기술이 온라인 운동 모임의 기능을 강화했다. 예를 들면, 비대면 달리기 앱 ‘런데이’는 트레이너가 옆에서 코칭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운동 방법을 알려 준다. 또, 이용자들은 간편히 러닝 크루를 만들 수 있으며 레이스를 마친 후 랭킹이 게시되어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운동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출처: 런데이 어플리케이션

마지막 특징은 자아의 확장이다. 이 트렌드가 비슷한 단어인 ‘스포츠’가 아닌 ‘운동’인 이유가 있을까? 스포츠와 운동은 살짝 뉘앙스가 다르다. 스포츠는 관람의 영역이며, 승부의 개념이 강하기에 이겨야 한다. 반면 운동은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어제의 나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와의 대결, 성취 혹은 성장과 관련한 의미로 쓰인다. 그렇기에 운동이 스포츠보다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더 유용하다. 자신의 성장을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 바로 ‘인

증샷’이다. 운동은 찬란한 나의 순간의 기록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최근 들어 비디오풀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을 통한 증명은 자신을 확장하고픈 욕망의 발현에서 기반한다.



비디오풀을 촬영하는 사람들(출처: 조선일보)

지금까지 살펴본 #오하운의 트렌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요즘 소비자들은 액티비티 즉, ‘움직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여행을 갔다고 상상해보자. 같은 해변에 가더라도 서핑을 했는지, 맛집 탐방을 했는지에 따라 그 여행의 기억은 다르지 않았던가. 다시 말해, 장소 그 자체보다 액티비티가 기억의 핵심이다. 운동을 통해 여러 면에서 확장을 하는 데는 ‘움직임’에 대한 갈급함이 기저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을 위해 몸을 움직이며 경험을, 관계를, 궁극적으로 자아를 확장하려는 요즘 사람들의 운동.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자신을 뒤흔드는 움직임으로 나의 한계를 규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 틀과 한계선은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한 성벽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잊지 말자. 한계를 규정하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지만,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면 심리적 한계는 더 늘어난다는 것을. 나의 틀을 뒤흔들며 몸을 움직여보자, 새로운 생각이 깃들며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오늘 하루 운동합시다, #오하운!

금오신화, 설공찬전에 있는 귀신 이야기

한국 고전 속 귀신 이야기

김미 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더운 여름에는 뭐니 해도 귀신 이야기로 몸을 오싹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다. 조선 시대에는 소설이 활발하게 지어지는데, 그중 귀신 이야기가 등장하는 고전들이 적지 않다. 금오신화, 어우야담, 천예록, 국당배어, 용재종화, 설공찬전이다.

금오신화(金鰲新話)는 조선 전기의 시인이자 작가이며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 금오산(金鰲山)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집이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榜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으로 구성되어 한국 전기체(傳奇體) 소설로 용궁, 저승, 신선 세계처럼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소재가 등

장한다. 이중 만복사저포기를 모티브로 한 전통놀이 저포놀이(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그 사위로 승부를 다투는 놀이)도 있다. 노총각 양생이 부처와 저포놀이를 해 승리한 대가로 수년 전 왜구들에게 죽은 처녀 귀신과 만나 꿈같은 부부 생활을 하다가 헤어졌다는 이야기로 산자와 죽은 자와의 사랑을 다룬 설화 속에 등장하는 놀이다.

어우야담(於于野譚)은 조선 중기 유몽인(柳夢寅)이 지은 설화집인데, 이 책의 2권 종교 편에 선도·승려·서교(西敎)·



무격(巫覡)·몽(夢)·영혼·귀신·속기(俗忌)·풍수·천명(天命)의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역병 귀신이 등장하며, 머리에 뿔이 나고 눈이 하나이고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솟아있는 도깨비가 등장한다.

천예록(天倪錄)은 임방(任猨)이 지은 야담집인데 환상적인 귀신담이나 신이담(神異譚)이 두드러진다. 특히, 역병 귀신이 많이 등장한다. 국당배어(國堂叢語)는 정태제(鄭泰齊)가 지은 잡서로, 귀매(鬼魅)라고 불리는 도깨비가 등장한다. 용재종화(龍齋叢語)는 성현(成俔)이 지은 필기잡록류(筆記雜錄類)로 여기에도 귀신 이야기가 몇 개 등장하는데, 전설의 고향의 주요 귀신인 뱀이 부인으로 변하고 죽어서 뱀으로 변한다는 이런 내용이다.



설공찬전(薛公瓚傳)은 1511년 무렵 채수(蔡壽)가 지은 귀신, 저승을 소재로 하는 고전소설이며,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공연되었다. 혼령과 이승, 저승의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이다.

한편, 중국의 귀신 이야기 고전으로는 요재지이가 있는데, 한국어 번역본도 출판되어 있어 읽어볼 수 있다. 관심이 있다면 올려놓은 재미있는 옛 고전들을 읽어보며 보내보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자료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금오신화(金鰲新話)》(이기원 역주, 통문관, 1959)
《설공찬전(薛公瓚傳)》(채수, 도디드, 2013)
《천예록 연구》(이신성, 보고서, 1994)
강원일보(2019-1-10)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baidu, naver



영천의 여름

코로나19 재확산에 지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은 유유자적 흘러간다. 햇살이 짙게 내리쬐더니 어느새 먹구름이 하늘을 삼킨다. 어느덧 사관생도들의 하계군사훈련도 끝이 나고 조금 선선하게 느끼는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지만,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른다. 영천의 여름이 이토록 뜨거운지가 언제부터였을까.

올해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무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졌지만, 평균적으로 30도를 웃돌고 지난 30년간 최고 기

온 39.6도(2016. 8. 13.)를 찍을 만큼 영천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영프리카(영천+아프리카)의 날씨는 직접 겪어봐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떠오른다.

누구나 여름을 겪다 보면 낮이 유난히 긴 이 계절이 웬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 스스로가 무기력해지며,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자. 어디선가 바람이 뺨을 스치고, 바람이 부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들어보면 놓

쳤던 풍광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뜨거운 여름 속 불쾌했던 감정에 작은 여유가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학교를 아직 방문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육군3사관학교의 여름 풍경을 조금이나마 소개할까 싶다.

코로나가 무사히 지



▲ 호국정

나갈 때쯤, 학교를 방문하여 풍광들을 감상하면 좋을 것 같다. 여름이 슬슬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함께 하는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누구나 싫어하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 잔디밭을 거니는 사슴들



▲ 학교내 도로

누군가와 바다를 가고, 계곡을 가고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함께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

사관생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전우들과 고된 훈련을 함께 받으며, 뜨거운 땀방울을 흘린다는 자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간다는 방증이나 다름없으니 가장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다. 어느 여름과 마찬가지로 영천의 여름은 오늘도 아름답게 흘러간다.

주무관 길진규



▲ 충성탑

성장의 원동력(原動力) 자기계발에 도전하라!

동문(同門)의 소리

이경 한중령(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팀장, 3사 30기 공학박사)



울산시장 난전(亂廛)에서 바느질하시던 홀어머니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한 청년의 이야기를 주섬주섬 담백하게 들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1993년 어느 날 영천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 멀리 보이는 3사관학교 충성대 굴뚝에 걸려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드시 되겠다고 가슴 시린 다짐”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다. 사실 그 청년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다만 그 청년은 3사관학교 충성대 3사 30기로 임관 이후 전·후방 임지(任地)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한시도 자기계발을 멈춰본 적이 없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약 28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을 지칭할 때 사람들은 중령, 박사(Ph.D), 기술사(PE), 객원 연구원, 팀장, 초빙 강사, 심의위원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다.

어느덧 40대 후반이 된 청년은 여전히 푸른 제복을 입고 군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심을 다하고 있음에 행복하다. 국방대학교 등 초청받고 강의를 하며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고, 조달청 등 심의위원으로 상징적인 국가 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함에 행복하고, 건축시공기술사로 전문성을 갖추고 군사시설을 건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각종 학회 활동 및 세미나 등에서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어 행복하고, 군사시설 협의의 이전사업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국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관들과 어깨를 견주며 군(軍)의 권원(權原)을 대변하며 협의(協議)할 수 있어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하다.



규제개혁세미나의제 발표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드시 되겠다고 가슴 시린 다짐”을 하던 그 청년은 무엇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또는 그 어떠한 것도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성장의 원동력(原動力)은 끝없는 자기계발이다.

1. 성장의 원동력 자기계발 아주 작은 것 에서부터 시작하라.

군 복무를 하면서 장기복무 또는 진급, 승진 시기에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사항이 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계발일 것이다. 얼마 전 임관 2~3년 차 장기복무 심사를 받게 된 후배 장교의 개인인사자력표 자격증란에 “공란”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장래 발전 가능성이 많은 후배 장교였지만, 객관적 자격점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모습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외국어, 한국어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계발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관련기관(LH 등) 협의(協議) 주관

2 병과 임무 수행과 연계된 자기계발에 도전하라.

초급장교 시절이었을 때에는 업무시간 이외에 자격증을 공부한다는 것에 많은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문화, 경제 등 시대 흐름에 부합된 병과와 연계된 자격증 취득은 곧 군(軍)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각자의 병과 특기 등과 부합된 자격취득에 관심을 가지고 임무 수행에 접목하는 습관(習貫)은 성장의 원동력(原動力)이 될 것이다. 우선 각자의 임무 수행과 부합되는 자격취득을 목표로 일과 이후의 시간을 잘 활

용해야 할 것이다.

3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3사관학교 충성대 임관 이후 현재까지 임지(任地)가 바뀔 때마다 인근의 대학 및 대학원을 다니며 야학(夜學)의 긴 터널을 지나 영광스러운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대대장 재직 시에는 용사들의 심리 관련 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독학(中毒學)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 건축, 조경, 건설 전공이외에 경영, 경제, 원예 등 다양한 분야에도 배움을 도전한 바 있었다. 임지(任地)에서 바쁘다는 사항은 모두가 비슷하다. 그러나 배움을 게을리하는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를 것이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마라.



국방시설 전문지원팀 임무 수행

한 청년의 아주 작은 이야기를 주섬주섬 담백하게 들려주다 보니 조금 자기 자랑에 치중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드시 되겠다고 가슴 시린 다짐” 하던 한 청년의 진심(眞心) 어린 마음으로 쓴 글이다. 우리 모두 성장의 원동력(原動力) 자기계발에 지금 당장 도전하자!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이이력 졸업생도

홍PD와 함께하는 크라운3사 #10

최고의 특수전 전문가를 꿈꾼다

육군3사관학교 49기 **엄지호** 대위

엄지호 대위는 특전사에서 특수전, 대테러 임무 수행 경험 특수전학교 최우수 '충성상' 수상, 육군홍보모델 활동 사고 민간인 구출 및 응급처치 유공 현재 UAE 군사협력단에서 국위를 선양 중.

#특전사 지휘관 시절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부하들과 함께 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Top team 최우수, 선봉중대, 종합전투력 최우수 부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한계라고 느끼고 그것은 절대 한계가 아니다, 호사로에서 단련된 강인한 역량은 훗날 매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과업에 임하기를 바란다.”

홍PD와 함께하는 크라운3사 #7

연대 의대 위탁교육 선발

육군3사관학교 52기 **송은혜** 대위

송은혜 대위 2년간의 생도생활을 마치고 병참장교로 임관하여 소대장과 보급장교로 임무를 수행 중 2020년 위탁교육 의과대학 과정 선발

MORTUI VIVOS DOCENT

장병들과 함께 소통하는 군의관을 꿈꾼다.

현재 송은혜 대위는 연대 의대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 군의관으로 임무수행 예정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평소에 꾸준히 준비하면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가진 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매순간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더 알고 싶다면?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홈페이지

한국군장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는 시간, <3사 팩트체크>

대박! 예쁘다!
옛날 제복.. 정말 이랬다고?

생도들이 역사관에서 학교 제복에 대해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옛날, 그리고 현재 제복을 보며 생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3사 팩트체크 - 제복편>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총명 생도 |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그래도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고

FOLLOW @KAAY2021



클라운3사
육군3사관학교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 어떤 인물들이 학교를 빛내주었을까요?



하계군사훈련
무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하계군사훈련을 진행한 사관생도들의 모습!



21년 룩북
생도들이 직접 모델이 되어 '21년의 일상록'을 보여주는 시간! 어떤 옷들이 있었을까요?

육군3사관학교를 탐방해보는 시간, <걸어서 3사 속으로>

이건 무엇을 걸어요?
학교 전경편 육군3사관학교를 소개합니다.

심리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함께 학교 내 이곳저곳을 탐방해보는 시간. 혹시 이것까지 알고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까요? <걸어서 3사 속으로>에서 확인하세요.

육군3사관학교 일까

지금 유튜브에서 <3사TV>를 검색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YOUTUBE @3sTV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1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1. 6. 24 ~ '21. 8. 26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3억 5천만원(2021.8.26 기준)

■ 3사민학교 발전에 동참하는 특별기부자

이근양(육사#3) 2(420), 이희범(육사#41) 2(422), 여운태(육사#45) 10(140), 신상범(육사#41) 103(107), 김호길(육사#48) 2(53), 두석주(육사#51) 2(192), 이우진(육사#54) 2(64), 조상근(육사#56) 2(137), 변용성(육사#59) 2(103), 이규현(육사#58) 2(97), 이주실(육사#59) 2(82), 김대영(육사#59) 2(170), 김진찬(육사#61) 2(67), 홍희중(육사#61) 2(99), 오민경(육사#65) 2(42), 오병진(육사#65) 2(20), 홍인재(육사#65) 2(32), 문준호(육사#67) 1(43), 이찬우(육사#68) 2(42), 조지웅(육사#68) 2(4), 권성진(육사#69) 2(30), 한덕수(학군#26) 2(109), 남기웅(학군#29) 2(14), 구희근(학군#32) 2(107), 서필석(학군#34) 2(14), 임문택(학군#34) 2(8), 이두진(학군#35) 2(20), 곽홍렬(학군#37) 2(32), 송경재(학군#37) 2(126), 김나람(학군#47) 2(33), 정우람(학군#46) 2(20), 이세훈(학군#48) 2(25), 홍현신(학군#48) 2(23), 나상철(학군#49) 2(17), 윤정훈(학군#50) 2(29), 이선호(학군#51) 2(12), 최재호(학사#29) 2(126), 이준수(학사#35) 2(110), 김기호(학사#37) 2(10), 예한석(학사#37) 2(28), 윤경주(학사#46) 2(16), 임도현(학사#54) 2(10), 구주현(학사#55) 2(28), 박수영(학사#56) 2(20), 성현애(학사#56) 2(48), 강진선(학사#57) 2(14), 심정현(학사#58) 2(36), 김소현(여군#46) 2(21), 김형태(간부#22) 2(56), 강찬영(군종#61) 2(32), 최윤정(간사#38) 2(41), 송소연(간사#58) 2(22), 이대희(준위#231), 진정철(원사#275)

▶ **부사관** : 류재운 2(194), 인영주 2(44), 양성우 2(66), 유정호 2(19), 이수진 2(12), 정해란 2(23)

▶ **단체** : (주)두림아스카와 1,000(7,000)

■ 졸업·재학생도부모('21.6.24~'21.8.26기부명단)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조경해(#45 황정태 모) 10(805), 백인숙(#47 ○○○모) 3(9), 성동모(#50 성영환 부) 8(208), 안순봉(#51 박상응 모) 20(390), 김현미(#52 오치원 모) 2(48), 이영미(#52 황성규 모) 6(298), 정정화(#52 조강현 모) 2(341), 박일심(#53 정필승 모) 4(126), 이영빈(#53 오경철 모) 2(46), 조정숙(#53 유영빈 모) 4(122), 윤영남(#54 이지호 모) 20(270), 홍성은(#54 홍동민 부) 4(238), 서완수(#55 서지찬 부) 4(82), 유현구(#55 유경운 부) 2(132), 정원섭(#55 정준영 부) 2(118), 고경욱(#56 최현준 모) 3(66), 송학빈(#56 송용준 부) 2(64), 정희숙(#56 배웅휘 모) 20(1,180)

▶ 재학생(4학년/57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강석근, 강해영, 김경남, 김근택, 김순말, 김중오, 박경석, 박동현, 심영선,

양내석, 오유미, 이동희, 이운주, 임승찬, 정재현, 지마리아, 한성희

▶ 재학생(3학년/58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강문찬, 김종용, 박상수, 구항분, 김도희, 장경목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기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분확인 연락바랍니다. (054)330-3180/3182

김무성(동명이인 다수), 황수현 1(2)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21.6.24~'21.8.26기부명단)

▶ 1기 김홍하 4(150), 남훈조 2(1,324), 임관택 2(80), 최요환 2(82)

▶ 3기 김태성 10(150)

▶ 4기 임성기 10(90)

▶ 9기 권영호 15(420), 김현기 6(1,179), 윤지환 6(144), 최병학 20(1,240), 이현희 5(100)

▶ 13기 문성목 30(240)

▶ 14기 김종환 2(56), 안호민 1(900), 이순진 30(800), 이웅진 20(280)

▶ 15기 김성연 2(525)

▶ 16기 원홍규 6(312), 윤영식 10(230), 이종우 4(161), 황병태 2(308)

▶ 18기 구연덕 2(128), 금용백 6(570), 노희태 5(267), 이기환 2(15)

▶ 19기 이경희 2(172), 이종형 6(253), 이창호 6(576), 임영갑 10(160), 홍성식 2(195)

▶ 20기 김윤희 3(67), 박관순 2(147), 서정열 6(483), 황인민 30(455)

▶ 21기 신철수 2(114)

▶ 22기 권순태 2(52), 김민수 15(70), 박철규 300(300), 이진성 2(260), 정경호 2(44), 조태환 4(143), 천병규 10(430), 홍성덕 10(211)

▶ 23기 김태일 2(230), 신영찬 2(72), 오승욱 6(264), 최승환 4(8), 허강수 4(279)

▶ 24기 곽중만 4(52), 권광락 4(284), 권오봉 4(215), 김도협 2(232), 김명철 4(30), 김성래 4(30), 남용구 6(279), 류병수 2(510), 모경원 3(228), 문석우 5(10), 박세철 2(70), 박원석 2(11), 방성대 2(81), 안연준 4(96), 이덕규 1(1), 이문휘 2(95), 이석근 2(10), 정정현 2(191)

▶ 25기 김남용 2(134), 문봉성 2(152), 이은진 2(48), 이종현 2(51), 장광선 6(378), 장무수 2(49), 전희준 2(305), 조재희 2(123), 홍은표 2(200)

▶ 26기 고창준 30(270), 양성안 1(10), 유근환 2(335), 이덕우 4(128), 이완주 4(129), 이태인 4(62), 임우영 2(244), 장용빈 2(123)

▶ 27기 김덕중 2(68), 김성오 4(30), 김용범 4(18), 김지덕 2(22), 김호복 8(257), 석수열 2(45), 안병욱 2(169), 원희문 10(245), 이희순 2(239), 정월균 2(44)

▶ 28기 권승영 1(25), 권양철 2(108), 김진길 2(80), 김창현 2(165), 박기수 2(89), 박용섭 4(173), 서청수 2(172), 유정일 2(37), 윤석찬 2(141)

▶ 29기 김강식 2(245), 김광석 2(2), 김용식 2(74), 김태영 4(30), 박성훈 2(153), 박태용 2(132), 이상일 2(188), 이의규 2(115), 임국기 10(10), 임성호 2(164), 최인섭 2(124), 현대식 2(150)

▶ 30기 김종권 2(84), 김효성 2(44), 남진오 2(55), 이병길 2(19), 이진 2(149), 임상달 2(119), 정명규 10(10), 주경호 2(113), 홍성범 2(37), 함민호 2(100)

▶ 31기 권동호 4(60), 김민식 4(98), 김영태 2(181), 김희엽 1(225), 염향수 2(136), 이재춘 2(210), 이훈복 2(48), 전경인 2(33), 최대집 2(46)

▶ 32기 권관덕 4(312), 김화용 2(113), 사인우 2(136), 송진수 11(77)

▶ 33기 권해욱 4(18), 김남성 4(168), 김상선 4(148), 김성근 4(144), 김현규 4(392), 남석진 2(138), 노일 6(164), 안경일 2(235), 안준영 2(119), 이정표 6(77), 조재봉 2(110), 홍종원 2(30)

▶ 34기 김기수 2(181), 김윤성 3(45), 김홍식 6(435), 이무이 2(404), 임창훈 2(81), 정창근 2(106), 정준황 2(57), 조수창 2(181), 홍영기 2(25)

▶ 35기 김경철 2(9), 김병수 2(81), 김수열 2(69), 박병준 6(308), 박상현 2(27), 박시근 2(183), 송명성 4(60), 이문희 2(149), 임창규 2(107), 장춘삼 2(144), 전성광 2(38), 정영석 2(106), 정호준 4(90), 하종수 2(25), 한종훈 4(367)

▶ 36~56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 57기 김도윤 5(85)

▶ 58기 이자평 1(1), 장인혁 1(1), 황영호 6(15)

발전기금 참여 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민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또는 전화연락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8박조국부, 58이충성모 / 00홍길동부(숫자는 자녀 기수)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

